

# 茶道



## 일주문 안에서 밖으로...

현대식·다도회 등 문화일구기 한창  
 유명 예술인 주축, 일반인에도 각광  
 양적 팽창 부작용 형식위주 지양돼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4년 과정의 '학생회' 과정과 중국차 음다법, 도자기 만들기 등을 가르치는 '사범회'도 운영한다. 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삼광사 다도모임 '차문화연구 보존회'나 통도사 부산포교원 '여란다회', 부산 안국사 선다회 등은 부산의 차문화를 일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교계 최대 규모의 차단체인 '천태다도연구보존회'가 결성돼 사찰 차문화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 천태종의 '천태다도'를 생활화하기 위해 발족한 이 모임은 정기적인 현대다도와 연구소모임, 학술발표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일찍부터 차문화 보급에 나선 스님들에 의해 이미 일주문을 넘어 일반 사회의 차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여연 스님은 1998년 '사단법인 일지암 초의 차문화연구원'을 만들었다. 국내 끝지의 차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초의(草衣, 1786~1866)선사의 차와 선(禪)의 세계를 기리는 '초의 차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선암사 지허 스님이 10여년 동안 이끌어 온 차모임 '산중다담'은 지난해 임권택 영화감독을 비롯한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한국전통차생자보존회'로 거듭났다. 이 모임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전통 차문화를 배우기 위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높다.

하지만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항상 부작용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일부 차계에서는 사찰의 차문화가 선자의 사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형식 위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한다.

서울 법륜왕사의 다회를 운영하는 선혜 스님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차의 덕에 물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차는 곧 선(禪)이다. 불교계에서 뜻깊게 지켜온 다도의 숨결을 바탕으로, 선의 경지에 이르는, 보다 진보된 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17년 전통의 통도사선다회는 주요 법회때마다 통도사 부도전에서 현대다도를 갖는다.

### "차나 한 잔 드시게(喫茶去)"

당나라 고승 조주 선사(778~897)의 유명한 화두 때문일까. 사람들은 사찰에 가면 으레 차 한 잔쯤은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실 차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향, 등불, 차, 꽃, 과일, 음식) 가운데 하나일 만큼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잠을 쫓고 맑은 정신을 유지시키는 차의 효능은 일찍이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 수행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성행과 더불어 국가나 불교 의식에 차를 올리는 진다례가 행해졌다. 조선시대에 불교의 쇠퇴와 함께 그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선차(禪茶) 문화는, 오늘날 차맥을 이어온 스님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

17년간 이어져 온 통도사 선다회는 부처님오신날이나 개산대제 등 사찰의 주요 행사에서 현대다도를 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도강좌

### 우리차



#### 봉로녹차

녹차의 고장 전남 보성, 해발 350m 고지의 오선봉에서 채취한 어린 차엽을 찌고 튀어서 만든 '봉로녹차'는 그 향과 맛이 싱그럽고 그윽하다. 1959년 문을 연 대한다업의 보성다원은 30여만평의 차밭을 형성하고 있어 각종 영화와 CF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00g 5만7천원. (02)2267-0973

#### 차인연합회 지도자 연수회 개최

한국차인연합회(이사장 박권홍)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18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 단위차회 회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회원간의 유대 강화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강연과 조별 토론회, 행사 시연 등으로 진행된다. (02)734-5866

#### 김포다도박물관 무료교육 실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다도박물관은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다도와 생활예절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낮 12시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며, 차 마시는 방법, 차의 성분과 효능, 생활예절, 한복 입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선착순 100명. (031)998-1000

#### 녹차, 충치 식중독 예방 효과

녹차가 입냄새 제거나 충치,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연구팀은 7월24일 '녹차 추출물인 폴리페놀이 치주질환과 입냄새를 일으키는 13가지 구강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물질은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에 대해서도 뛰어난 살균능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오제현 순천향대(생명공학부) 교수는 "이 물질은 차아 표면에 세균막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차맥 지킴이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소장)



'차맥(茶脈)을 지켜가는 사람.'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춘(50)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증흥조인 조의선사 차맥을 이은 응송 스님을 은사로 차를 접하게 된 후 20여년을 '차맥 지킴이'로 살아온 박 소장. 장마가 끝나가는 7월 말, 과천에 있는 서당에서 그를 만났다.

바람이 선듯선듯 불어오는 자리에 앉자 박 소장이 차를 한 잔 건넨다. 흔히 '동춘차'라 불리는 이 차는 전남 송주 송광사 근처의 야생 차밭에서 딴 차를 직접 따서 만든 것이다. 정양도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원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등 '동춘차' 애호가들이 '소쇄(瀟灑, 산뜻하고 깨끗함), 담백하면서도 기운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평하는 이 차는 흔히 마시는 차와는 달리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열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풍토와 기후, 체질에 맞는 뜨겁고 맑은 맛을 선호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드러내는 차는 이러한 맛의 '결정체'죠."

하지만 시중에서 동춘차를 구할 수는 없다. 돈을 받고 차를 팔지 않기 때문이다. "차를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일은 차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박 소장은 이어 무쇠솥에 뒤고 비비는 작업을 비롯해 차가 만들어 지는 과정의 세심함과 정밀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 초의선사 차맥잇기 20여년

#### 음미하는 순간까지 모두 수행

#### "원형 지켜나가는 것이 최선"

다. "결국 차맛을 따는 순간부터 뜨거운 무쇠솥에 차를 뒤는 과정과 뜨거운 물로 우린 차를 한모금 마시며 그것을 음미하는 순간까지 그 모두가 수행임을 20년 차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박 소장이 오늘날의 우리 차문화를 우려하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수행으로서의 차'가 아닌 상업화와 형식성에 몰든 차만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는 차를 '문화'로 이해하고,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차가 가진 진정성은 행위가 아니라 사상이며, 예라는 것은 그 사상을 습득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차인(茶人)'이란 수행자이며, 이론가이고 실천가여야만 차가 갖는 수행자적 면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대의 자취와 노력, 인식이 녹아있는 결정체인 차문화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그는 최근 제자를 받아들였다. 차문화와 전통제다법을 전문적으로 연구·전승할 5명의 연구생들은 5년여 간의 교육과정 동안 한문의 원전인 <통강>과 <경몽요결>, 육우의 <다경> 강독, 제다 실습 등을 배우게 된다. 전통성과 함께 지킴이로서의 사상이 정립되어야 진정한 차맥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소장의 '교육철학'이기 때문이다.

"도제식 교육이 전통의 원형질을 지켜나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차를 바르게 다룰 줄 아는 소양과 정신자세를 갖춘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한다. 여수령 기자

## 육법등 (六法燈)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정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충만 및 대리점 모집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 金烏불상 "천년의 풍경"



기존풍경에서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못하며  
 내구성이 각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수명이 짧고  
 일반주물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오불상**은!!

#### 금오불상 풍경의 특징

자세 압금하여 재질의 순도가 높아 소리가 맑고 맥놀이까지 가능합니다. 각 연결부위를 스텐 및 특수주물로 제작하여 물고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 반 영구적 입니다.

용소각의 최고 권위자가 조각하여 섬세하고 기품있는 외형은 풍경중에 백미이며 금오불상에서만 유일하게 제작됩니다.

판매금액은 百萬원이나 기존 풍경 반납시 1set에 800,000원에 판매합니다. (반납된 풍경은 군법당 및 소규모 사찰에 무료 시주됩니다.)

- 풍경제원 ▶ 높이 : 22cm (옹두 4cm)  
 ▶ 높이 : 14.7cm  
 ▶ 무게 : 2.6kg  
 ▶ 재질 : 동 98%, 실리콘 1.8%, 기타 0.2%

전화번호 032)672-3136, 011-412-3136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701-01-187922 예금주 이성건